

무용교사의 자유학기제 수업인식*

김민정 중앙대학교, 석사 · 김승일** 중앙대학교, 교수

Dancing Teachers' Perceptions of Free Semester Classes

Kim, Min-Jeong *Master's Degree, Chung-Ang University* · Kim, Seung-Il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운영되는 무용 수업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무용교사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 활동 요인과 무용교사 활동 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특성은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무용교사 4명을 대상으로 유목적표집 한 후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무용교사의 자유학기제 수업 인식 분석으로 무용 수업 활동과 무용교사 활동으로 2가지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학교현장에서의 자유학기제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 부족, 지원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 체계적인 운영과정의 과제와 발전이 필요해 보였고, 활발한 움직임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무용수업의 관심, 흥미, 성취감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무용교사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서술식 평가와 평가기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지침이 있지 않아서 무용 교사의 부담감과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융합수업 인식으로 무용 교육의 확장성을 위해 타 교과와 더불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야 되며, 복합적인 융합예술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용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무용 교사,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활동, 수업 인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ance classe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free semester system and to find out dancing teachers' perceptions of dancing class activity factors under the free semester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dance them. In order to obtain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using purposeful sampling,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4 dancing teachers who were actually having dance classes under the free semester, which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The two key themes have been drawn up to analyze dancing teachers' perceptions of the free semester classes; dancing class activities and dancing teachers' activities. First, there seemed to be a need for lack of awareness of free-semester dance classes in the school field, support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problems, systematic operation and process tasks and development, and there was a positive change as students' interest, interest and achievement in dance classes in-

* 본 논문은 김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big3516@naver.com

creased through active movement activities. Second, a dance teacher provides opportunities for various experiences. However, regarding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free-semester system, dancing teachers were found to have a burden and limitations since there was no correct and detailed guideline for narrative evaluation and criteria. Therefore, to secure the expandability of dancing education based on convergence class, various classes should be provided along with other subjects. In addition, with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ultiple convergence-based art classes, the strategies are needed to expand and develop dancing education.

key words : Dancing teachers, free-semester system, Dancing class activities, perception on classe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 등장과 함께 직업 세계가 확장되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여러 지식과 문제를 융합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현재 시대를 반영하듯이 2013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시범 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13년 2학기부터 연구학교 42교를 시작으로 2014년도 811교(25%), 2015년도 2,551교(80%), 2016년도 3213교(100%)로 전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달성하면서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끼를 발휘하고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하는 취지에서 출발되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 교육과정 개정내용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교과가 어떠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인문과 사회 과학기술에 관하여 핵심 중심과목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게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자유 학기제' 운영이다(교육부, 2016).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6). 자유학기제는 공교육의 체계를 완성시키고 학력을 신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의 흥미도와 행복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되어 그간의 주입식 교육에 의한 학업을 강조했던 탓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는 교과와 자유 학기활동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고 대체적으로 기본 교과는 오전에, 자유학기활동은 오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과와 더불어 운영되는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네 가지로 나뉜다.

한국무용교육혁신위원회(2016)에서 발표한 예술 교과 내 무용과목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를 따르면 무용교육의 필요성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용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조사에서 무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사 대부분(97.9%)로 응답했으며, 무용교육 참여 학생의 학부모에서 9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무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교사들은 그렇다(63.5%)가 그렇지 않다(5.9%)의 비례 월등한 결과로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무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무용 교육수업으로 인하여 느끼는 여러 가지 효과와 기대감 인식으로 긴장 완화, 공감 능력, 자기표현의 효과를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결과는 무용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성으로 대두되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기도 하다(원상화, 2017).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예술 교육 활동에서 무용교육수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무용교육은 예술교육이면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체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중학교에 전면 시행이 확대되면서도 ‘무용교육’이라는 예술적 특성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예술·체육의 융합적인 운영에서는 무용이 언급되고 있으나, 예술·체육활동 안에서는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원상화, 2017).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에는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무용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여전히 체육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신은경, 2016). 실제 자유학기제 예술체육 활동 운영 매뉴얼을 보면, 무용교육은 그 교과 자체로서 타 교과와 명백한 구별성이 있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연극, 뮤지컬 또는 체육이 대신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렇듯 자유학기제 무용교육수업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에서 무용교육수업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조사를 통해 무용교육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 교과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무용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담론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유학기제 무용교육수업으로 활동하는 무용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업의 운영 현황과 인식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무용교육수업의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되고 발전가능성 있는 무용교육수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유학기제의 무용교육수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무용교사의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 인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운영 과정, 긍정적 변화와 실행과정의 문제,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 운영에 대해 무용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 운영과정에서 긍정적 변화와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무용교육수업의 운영 및 무용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대상,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진실성 및 연구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연구 대상

1) 연구자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무용교육 수업의 교사인식 분석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관해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현재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을 실제 활동 중인 무용교사 4명을 비 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유 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유 목적 표집법은 연구 대상이 가능한 집단 중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사례 간의 비교를 통해 일반화를 제한하며,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자유학기제 무용교육수업 활동을 하고 있는 26세-34세로 연구 참여자의 기준에 적합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무용교사 4명을 연구 참여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무용교육 수업 경력	수업 학교명
1 무용 교사 A	여자	28세	6년	ㄱ중학교
2 무용 교사 B	여자	27세	7년	ㄴ중학교
3 무용 교사 C	여자	34세	6년	ㄷ중학교
4 무용 교사 D	여자	26세	2년	ㄹ중학교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조사, 서술적 설문조사와 참여 관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심층 면담과 서술적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2회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공식적인 면담 형식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과 비 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김지현, 2016). 본 연구는 공식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과 같은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2014)의 연구 보고서에 기재된 교사용 설문지와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의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면담자의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수집 된 녹취 내용은 개인 컴퓨터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면담내용을 전사하였다. 모든 심층면담은 개인적으로 실행되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다소 문맥이 맞지 않은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면담에 활용된 질문 영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면담에 활용된 질문지 영역과 내용

내용 영역	세부 내용	비고
연구 참여자의 이해	성별, 연령, 무용교육경력, 수업학교명	서술적 설문조사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 무용교육수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심층 면담
무용수업의 긍정적 변화와 실행과정에서의 문제	무용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무용수업 준비과정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 무용교사의 전문성 무용수업의 인식 및 태도 무용수업을 통한 변화	심층 면담
무용수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방안	심층 면담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서술적 설문조사를 취합하고 심층면담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전사(Transcription)하여, 전사된 자료를 1차 부호화(Coding)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사례기록(Case Record)을 하였으며, 개인별 종합 프로파일(Multi-profile)을 작성시키고, 작성된 개인별 종합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2차 부호화 과정을 거쳐 연구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 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본 연구에서의 진실성은 연구자, 무용 교사 참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반복적인 협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서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 분석법을 활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검토를 통해 계속적인 개입, 구성원간의 검토, 동료 간의 협의, 반

복적이고 정기적인 관찰과 수집, 연구자의 방법적 반성 등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자료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 보관에 신경을 썼다.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 무용교사의 자유학기제 수업인식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범주로 무용 수업활동과 무용교사 활동의 2가지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1. 무용 수업 활동

본 장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무용 수업을 활동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무용교사가 무용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인식의 변화, 수업 운영, 무용 수업을 통한 경험과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 자유학기제 특성, 무용 수업 인식, 무용수업 운영, 무용 수업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1) 자유학기제 특성

자유학기제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자유학기제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설정과 교육 주체인 무용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목적을 이해하고 과정 속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고, 자유학기제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만의 교육 목표와 방향, 수업 구성에 대해 준비하면서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유학기제이지만 결국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고, 특히 학원에서 여러 학생이 모이는데, 자유학기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랑 운영을 실제 하지 않는 학교랑 비교하면 집중도와 참여도가 확연하게 달랐어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어요. (10.28 / 연구 참여자 A)

자유학기제란 1학년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하는 수업으로 직업적인 선택에 있어 경험을 위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용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문계 친구들이나 무용을 접해보지 않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흥미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줄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갖고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10.18 / 연구 참여자 D)

무용교사 대부분 자유학기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자유학기제 취지에 대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딱딱한 시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로 체험과 예술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유학기제 수업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유학기제를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교육 목표와 수업 구성을 준비하면서 무용 교사 개인의 수업의 준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의 연구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운영학교들은 비 운영학교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해 높은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운영학교가 비 운영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운영학교는 비 운영학교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인식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목적과 특성에 대해 깊숙이 인식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현장의 인식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 학교 교사들에게도 그 역할에 대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무용 수업 인식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실험, 실습 학생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진로탐색 및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 내 무용 수업 또한 이런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기존의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참여 중심, 경험 중심의 수업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용교사가 느끼는 무용 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무용 수업 특성과 이해, 태도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고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진술이 많았다. 무용교사들 또한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무용 수업이 특별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학교 내 인식 속에서 수업 운영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음 만났을 때 막연히 다들 무용에 대해 어렵고 발레스타킹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거부반응을 보였어요. 먼저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가위 바위 보에 져서 그냥 들어왔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 선택할 때 흥미를 가질 수 있을만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무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니깐 그런 인식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11.02 / 연구 참여자 B)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은 수업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용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도가 많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10.18 / 연구 참여자 C)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에 있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문

제의식에 대해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이원주(2007)는 무용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 200명 중 전체 13명(6.5%)만이 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에서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개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안의 무용 수업으로 체험 활동, 진로탐색, 학생의 자율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무용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교 교사에게 무용 수업을 왜 하여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고 인식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의 확대와 발전 가능성이 뚜렷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학생들의 무용 수업 선택권 존중 부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각 반마다 이 수업을 신청해서 오는 학생들이긴 한데, 이것을 정말로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 보다는 선택방향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10.28 / 연구 참여자 A)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서 선택과목에 대해 수강신청 하듯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인기가 더 많은 수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먼저 자기가 원하는 수업이 인원이 많거나 지원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등 떠밀려서 선택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선택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10.18 / 연구 참여자 C)

자유학기제 수업을 접하거나 경험해 보지 않은 중학교 1학년들에게 자유학기제란 수업이 생소하고 학교에서 정규 운영되는 교과수업이랑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해 차이점을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2013년 시범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2016년 전국 중학교로 전면 시행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한 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자유학기제에

수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학기제로 꿈과 끼를 찾아 주겠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음에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흥미있는 수업은 선착순이고 인원이 제한 되서, 인기가 많아서 그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가위 바위 보로 해서' 또는 '친구들을 따라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라고 본다.

고세영(2017)의 연구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 여건에 대해 한계와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참여하겠다고 지원을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서 흥미 없는 수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 수업에서 벗어나고 분리되고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것인데,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교과 수업과 다른 점에 대해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필요성의 인식도 점점 낮아지는 문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깊숙이 인식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3) 무용 수업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 핵심은 체험중심의 학습과 진로 교육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주도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무엇보다도 시험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의 학교생활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용 수업에서는 일상생활과 다른 움직임과 표현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서적인 느낌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의 무용 수업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몸을 직접 움직이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넓고 자유로운 장소에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과정과 함께 학생 구성원과의 협동심, 이해, 소통, 창의력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2013)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는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던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학교구성원 업무 배분 및 보조인력 배치, 수업 시수, 소수정에 수업운영의 면담 내용을 통해 자유학기제 지원과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 이다.

다음은 학교 구성원 업무의 배분 및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요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조건이 정교사2급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을 구하세요. 저는 정교사2급자격증이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코티칭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용교사가 전적으로 하는데, 코티칭 선생님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업환경 부분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학생들의 수업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분위기가 딱딱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이런 경우 자율적인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10.18 / 연구 참여자 C)

위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수업 운영을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지, 명확한 업무 구성의 배분 및 보조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인식한 인터뷰 내용이다.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의 연구에서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요소 중에서도 보조인력 배치 및 구성원의 업무 배분 관련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구성원의 명확한 업무 구성과 배분이 어려운 것은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교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의 조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고 담당교사와 비 담당교사간의 협의하여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코티칭 선생님과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학교에서 외부강사들을 위해 지원해줄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가 학교 내에서

교사 자신의 업무 과다로 혹은 마지못해 해야 되는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의 초점을 버리고 내적으로 학교 업무 구성의 효율화와 합리화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해 보이며, 자유학기제 수업 내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배치된 학교 구성원의 코칭 및 보조 인력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면서 안정적인 수업의 환경을 고려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효율적인 수업시간 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45분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교일정에 따른 단축 수업, 행사 등으로 인해 수업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시간이 단축한 만큼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갖게 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힘들어하지 않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단축한 수업시간을 다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되면 움직임 활동이 많아보니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시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학교일정에 따른 단축수업에 대해 유연한 대처방법을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28 / 연구 참여자 A)

사실 일주일에 더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2교시를 못가기 때문에 5.6교시 연달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차라리 1교시씩 나눠서 한 반마다 일주일에 총 2번씩 만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1.02 /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A는 학교일정에 따른 단축 수업으로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고, 움직임 활동이 많은 수업 특성 상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들고 지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서술하였다. 부족한 시수보다 단축수업에 따른 수업 시간을 학교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수업시간의 효율적인 구성면에서도 어려운 점을 서술하였다. 연구 참여자B는 1학년 학

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집중력이 2교시를 전체 수업하는 것에 대해 쉽지 않은 것을 진술하면서 일주일에 1시수씩 나눠서 총 2번의 수업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고 집중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2013년도 자유학기제 시행 초범 운영 계획안에는 수업시수 증감 제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수업시수 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3). 이에 따라 많은 연구학교에서는 예체능 교과 수업 시수를 자율과정으로 차용하였으나, 2015년 8월에 발표된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에서는 특정 교과(군)에서 34시간을 초과하여 '자유학기 활동'편성 불가라는 추가적 명시를 달아놓음으로써 현행되고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교육부, 2015). 그러나 여전히 학교 교사들은 기존 수업시수도 많은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준비와 운영 담당까지 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 부담의 증가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업 운영시간과 시수를 조정하기에 앞서 학교 내에서 먼저 수업 시수 및 시간에 대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안의 자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하는 바를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의 인원 제한, 소수정예 운영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한 수업에 20명~30명씩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한 교실의 인원만큼 30명씩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보면 경험의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없게 되요. 인원이 많아보니 한꺼번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또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텐데,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서로 맞출 수 없는 점이 있어요. 소수정예로 수업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28 / 연구 참여자 A)

정말 협소한 공간에서 20명 이상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하니깐 서로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어요.

(11.02 / 연구 참여자 B)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유학기제에 들어오는 학급당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유학기제 한 수업에서 20명에서 30명씩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힘든 점이 있어 학생들이 경험의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통제하여 수업을 하는 것에 일반적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는 점에 소수정예로 수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고세영(2017)은 자유학기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현직 교사들도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따르고, 다양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동안의 교과수업과 달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의 수준, 선호도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수업 참여를 하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이 나오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말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유학기제 실상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발전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무용 수업 효과

무용은 인간 발달영역에서 즐겁고 신나고 생동감 있고 활력이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오감의 감각기관 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풍부한 표현능력 향상시키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창의력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데 무용 수업에서 그 효과가 드러난다. 무용 수업 효과를 통해 신체적, 정

서적, 심리적으로 조화로운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학생 스스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주도적인 미래를 위한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가치를 존중받는 '행복한 삶'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진 점, 점점 수업에서 관심과 흥미도가 생겨 다음에도 무용 수업을 듣고 싶다는 점 등으로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서술 하였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의 면에서 관심도와 흥미도가 증가하였고, 무용 수업의 성취감이 증가하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학생과 무용교사의 관계 변화와 신뢰감 형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과정이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서술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가 외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무용 교사들로 하여금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무용 수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은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무용 북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표회에 올라서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고 내려오면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 성취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학기에 무용 북 수업의 프로그램이 편성되면 전 학기에 들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시 이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저는 서로 같이 완성된 작품 한 가지를 경험해보고 다 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합을 맞추면 굉장히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각자 개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했을 때의 성취감, 학예 발표회나 체육대회 그런 상황에서 같이 연습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10.28 / 연구 참여자 A)

학생 본인이 뭔가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유도하였는데, 그 중 부채춤이 가장 학생 본인들도 변화에 대해 제일 느끼면서 재미있게 수업에 임했고, 나 혼자 개인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부채춤의 동작과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가장 많

은 흥미를 느꼈어요. 또한 라인댄스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은 관심과 흥미를 표출한 것 같아요. 국악음악뿐만 아니라 신나는 K-POP 음악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어했어요. 그리고 남학생들도 잘 움직이지 않으려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소고춤을 통해 악기를 신나게 두드리면서 할 수 있던 수업이어서 제일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여줬어요.

(10.18 / 연구 참여자 C)

연구참여자A는 무용 복 수업을 통해 활발한 신체움직임과 협동활동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취감을 유도해주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D는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 새롭고 신선한 것에 재미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생동감있는 수업을 구성하여 가르쳤다.

이세현(2015)은 ‘단체활동’, ‘수업내용’, ‘표현의 즐거움’은 ‘창작무용 수업’에 의한 결과로 나타내었다. 적극적인 창작 움직임을 통해 자기의 속에 내재된 감정을 표출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면서 자신감 또한 길러질 수 있다. 이는 신체와 정신이 통합되어 다양한 과제에 도전해 보는 자기 발견, 자기실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국은미, 1994). 정해진 틀에 맞추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무용 수업으로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2. 무용 교사 활동

본 장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무용 수업을 활동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무용 수업에서 인식하는 무용교사의 전문성, 개인역량, 평가 방법, 평가방법의 한계, 융합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하위 요인으로 무용교사 역할, 무용교사 인식, 융합수업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1) 무용교사 역할

무용교사는 무용 담당 교과목에 대한 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지닌 전문인이 되어야한다(송주현, 1997).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수업을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것으로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한가지의 장르만 고집해서 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수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 한국무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가지로 고집해서 진행을 했는데, 흥미와 관심도에 크게 변화가 없어서 아이들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설정하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18 / 연구 참여자 C)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무용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라는 경험을 갖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보통 한국무용이라 하면 하면 누가나가 동일하게 부채춤, 강강술래 등 전통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점이 안타까웠고 무용을 고리타분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게 재미있는 놀이 활동이다! 그런 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그런 수업이 되도록 실제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21 / 연구 참여자 D)

무용교사의 역할은 무용을 통한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창의력 함양에 도움을 주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목표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식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한다. 무용교사의 역할을 통해 몇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무용교사의 전문성, 무용교사의 자질, 학생 특성에 맞는 수업구성을 통해서 무용교사의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고세영(2017)은 학생들의 교육방법을 결정하는데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고려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진로 탐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로탐색에 대한 중점적으로 고민을 다루고 있었고, 실생활에서의 전이와 확장, 지역사회 연계, 다양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을 결정하고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 밖에 예술 영역에서도 학생들의 감수성 증진과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에 대해서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와 같이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용 한 장르의 수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발전이 필요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미래 사회에 인재로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주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서 증진시켜줘야 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수업을 고려하고 도움을 무용과 교과 간 수업이 함께 더불어서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무용교사 인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평가 방법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나타났다. 기존의 중간·기말 지필고사를 제외하고 수행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방식에서 수업시간 내에서 무용 교사가 적은 내용들을 토대로 학생들의 수행 및 태도 등에 대해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NEIS상에 기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NEIS상에 기입하는 것은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지만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을 적는 방법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표현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표출하였다.

요즘 NEIS에 부정적인 단어를 지양하고 있어서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내용을 기입해야되요. 그래서 저는 평가 방법으로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요. '이 팀은 조장으로 팀을 잘 이끌어가고 리더십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식으로 관찰하여 작성하고 평가지를 기록할 때 학생 개인의 장점, 수업에서 좋았던 점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1.02 /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D는 NEIS에 입력해야 되는데 부정적 단어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위주로 수업의 태도와 학생 개인의 장점, 수업에서 좋았던 점, 특별한 사건에 대해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대체한다고 서술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NEIS에 기입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부정적 단어를 지

양하고 긍정적이고 형식적인 성취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용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한계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점수가 아닌 서술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수업에 있어서 한 학기만 이 학생들을 만나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보고 이 수업에 대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학기제 평가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준거해서 아이들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현재 수업에서 태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 평가방법이 맞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어요.

(10.28 / 연구 참여자 A)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켜서 기억하기에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한번 8주밖에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20명을 다 기억하고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고 반항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맞는 것인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1.02 /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많은 인원의 학생 수를 대상으로 서술로 학생생활기록부에 적어야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수업의 평가방법으로 무용 교사들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폭은 넓어졌지만 그 중 여전히 평소 잘 눈에 띄지 않거나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다. 또한 평가에서도 수업을 통해 눈에 띄는 활동을 보지 못해 장점에 대해 서술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수업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의 평가도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에 최대한 긍정적 단어를 사용해서 평가를 기입하여야 하는 점에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기준을 견고히 구성해야한다고 보인다. 학생들의 활동들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이전의 학교 생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 역량을 발견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만, 위와 같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당성과 인식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 융합수업 인식

교과 간 융합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무용 수업을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자유학기제 모형인 '공동 과정'의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도덕, 과학, 기술과정과 '예술·체육 모형'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과 간 융합 요소를 추출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융합수업을 권장하여 본인의 전공 교과인 무용 수업의 중심으로 벗어나서 국어, 미술, 연극 등을 융합하여 움직임 표현 활동으로 연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유학기제에서 융합 수업의 위주로 같이 활동을 구축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술 동향에 따르면 무용교육만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늦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융합예술수업으로 갔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04 / 연구 참여자 B)

저는 무용을 기본적으로 하되 음악이나 미술적이 요소도 같이 합쳐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시간의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신체활동으로 구성하기에 부담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속화나, 옛날의 서양화도 그렇고, 민속화하면 김홍도의 '무동'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서 한명을 지우고 여기서 어떻게 춤사위를 추고 있을까? 라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한 다음 그림을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을 해보거나 이런식으로 진행하였어요. 요즘 무용으로만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21 / 연구 참여자 D)

융합 수업에서 무용교육은 확장성과 전이적 특성을 통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용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감각 수용 과정과 이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타 교과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으로 확장되고 전이된다. 이를 통해 융합 교육의 핵심은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의

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무용 교육의 확장과 전이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기본 목적과 운영방안에 따른 수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무용교수법에 대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수업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김소연(2016)은 무용과 융합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융합인재교육이 대두되면서 무용과 관련 된 융합교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융합의 형태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연수과정을 지원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였다.

이영주(2017)는 자유학기제 연구사례를 통해 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구체적이고 다양한 융합예술 프로그램 개발, 2)교과간의 연계, 3)학생들의 흥미를 이끄는 학생 참여형 수업, 4)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무용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융합프로그램 구성할 수 있어야하며, 교수학습지도안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많은 무용 교사들이 수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본 교과와 융합하여 무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은 신체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아름다운 미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내적 자극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인 역량까지 발전된 영역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거듭하면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무용 수업의 운영과 융합수업프로그램에 개발에 대해 필요성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교사의 자유학기제 수업인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으로 활동 중인 4명의 무용교사들을 유목적 표집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술적 설문조사, 심층면담, 문서수집 등을 통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고 항시비교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윤리성을 검증하였고 무용교사의 자유학기제 수업인식으로 무용 수업 활동과 무용 교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내용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에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현장에서의 인식에서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 교사들에게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무용 수업 인식으로 학교 구성원들에게서 무용 수업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관심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보장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한계점에 대해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정당성이 깊숙이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수업 운영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업무와 보조인력 배치, 수업별 시수 조정 대해 대부분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점에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 보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과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발전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수업 효과로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미적인 신체적 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용 수업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증가와 높은 성취감을 통해 학습증진, 학생 만족도가 향상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무용 수업 참여 여부가 교사와의 높은 신뢰감 형성, 교우관계 형성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교사의 역할로 학교 현장에서 무용을 통한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고 반성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수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무용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현장에서 무용교사가 느끼는 인식으로 학생들은 자유학기를 통해 지필 시험 평가 등 학업의 부담감의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자유학기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 시점에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 요소로 평가방법에 대한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서술적 평가를 해줘야 되는 지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학급당 학생 수 과밀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단기간에 파악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의 기준과 교육내용에 대한 명시가 없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평가해야 된다. 자유학기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평가 방안과 기준에 대해서 협의와 수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융합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수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수업 방식의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으며, 실상 학교 현장에서 무용은 아직도 주목 받는 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에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적 신체활동과 기본교과와 융합적 요소를 조화롭게 접목하면 무용 수업이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고세영(2018).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수업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 교육부(2014). **자유학기제 예술체육 운영 매뉴얼**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발표**

- 국은미(1994). **창작무용학습이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2016). **융합교육으로 본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2016). **젊은 인무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 분석**.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송주현(1997). **무용담당 교사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은경(2016). 학교 교육과정 내 무용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27(3), 5-22.
-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 원상화(2017).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무용교육의 역할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28(2), 57-76.
- 이세현(2015). **중학교 무용수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주(2017). **자유학기제 연구사계를 중심으로 한 예술중심 융합교육의 분석 및 제언**.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원주(2007). **중학교 체육·무용교사의 무용교육과 평가에 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 한국무용교육혁신위원회(2016). **예술교과 내 무용과목 신설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9(2), 33-68.

논문투고일: 2020. 05. 30

심사완료일: 2020. 06. 29

수정완료일: 2020. 07. 12

게재확정일: 2020. 07. 15